

글쓰기-이상적 공감대를 향한 발걸음

유승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무릎을 치며 “그래, 바로 그거”라고 외칠 때가 있다.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소재에 대해 나의 친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더 나아가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했을 때 공감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더 없이 행복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고사에 나오는 관중과 포숙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도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 것이다.

나도 한때 관포지교를 누릴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맸다. 나를 송두리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그 사람은 내가 알아’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스스로 ‘이상적 공감대’라는 단어를 만들어 나와 이상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용기를 잃어갔다. 친구는 고사하고, 태어난 이후 나를 줄곧 봐오신 부모님과도 이상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갔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소설을 읽게 되었다. John Steinbeck의 단편소설 〈국화(The Chrysanthemum)〉 속의 여주인공은 남편, 아니 남편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처음부터 무모했던 나의 여정의 마침표를 대신했다. 슬펐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적 공감대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이었다고.

그러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이를 수 있는 꿈은 아니지만 그렇다

고 포기해야만 하는 꿈일 필요는 없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 다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시지푸스가 오늘도 돌을 밀어 올리듯이 말이다.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마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노력을 포기할 때 불화가 생기고 더 나아가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알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왜곡 없이 받아들여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바로 이 노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글쓰기가 갖는 의미이다.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답을 하기 위해 너무 돌아온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완벽한 공감대는 불가능할 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는 글쓰기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효과적인 통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글쓰기 자체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글 속에 들어있는 글쓴이의 생각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과 조화를 이뤄내는 글쓰기일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글쓰기는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더욱 높여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거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글쓰기는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기만적이어서는 안 된다. 글쓰기는 글쓴이의 사고의 흐름이 솔직하게 표현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글쓰기에 인류평화 증진이라는 숭고한 목적까지 부여하고 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글쓰기가 무엇인지까지 규정짓고 나니 글쓰기에 임하는 자세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의미 있는 글쓰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먼저 글쓰기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이전에는 글을 어떻게 써 나갈까라는 고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쓸까' 라는 고민보다 '무엇을 쓸까' 라는 고민이 되어야 한다. 지난 학기 수

강한 <한반도와 국제정치> 수업에서 팀 페이퍼를 써 나갈 때에는 주어진 세 달여의 시간 중 두 달 이상을 주제를 정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사용했다. 개인 리포트였다면 조급한 마음에 대충 주제를 잡고, 써나가는 과정에서 잘 쓰면 될 것이라는 유혹에 쉽게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조원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제출 마감일을 20여 일 앞둔 시점까지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다. 팀 페이퍼를 완성한 후 돌이켜보니 무엇을 쓸 것인가에 할애한 시간들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의미 없는 글을 형식만 갖춰 써내느니 차라리 한 줄을 쓰더라도 의미 있는 글을 써 내는 것이 좋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다독(多讀)을 통한 사고확장의 과정이 선행 및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가 되었다면 그제서야 어떻게 쓸까라는 고민을 할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생각하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많이 써보는 것 이외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엇이든 기록하고 쓰는 습관을 기르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떤 글을 쓰든, 심지어 어떤 문장을 쓰든 완벽하고 완성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강박관념은 글쓰기를 두렵게 만들었고 솔직한 글쓰기를 방해했다. 머리 속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멋있게 꾸며내려고 하니 글쓰기는 항상 고약스럽기만 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가식을 떨쳐버리기로 작정했다.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문법, 맞춤법에까지 구애 받지 않고 무작정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 스스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책을 읽든 펜을 들고 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책 모퉁이에 써 내려가는 것이었다. 작가의 생각에 감탄하기도하고, 작가를 칭찬하기도 하고, 작가를 놀리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솔직한 글쓰기를 익혀나갈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일기를 쓰는 방법, 자신의 블로그를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방법 등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퇴고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했다. 전공 수업 중 한 교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쓴 글을 사랑하게 된다. 그

러나,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떤 글을 쓰든 매번 머리 속을 맴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마추어는 자신의 취미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만 프로는 만족을 모른다. 세기의 연주라고 극찬을 받을 때에도 진정한 음악가라면 자신의 연주 중 미흡했던 부분을 떠올리며 씩씩해 할 것이다. 나도 글쓰기에서만큼은 프로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다. 폭풍우 같은 시험기간이 다가오는 와중에서도 제출일에 앞서 미리 리포트를 완성할 수 없었던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치고 또 고쳐도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 특히 지금은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한 선배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서평 몇 개를 보여주며 평가를 부탁했던 경험은 새로운 시각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여기까지 글을 쓰다 보니 앞서 이 코너를 채웠던 다른 글들과 내 글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독창성 없는 글을 써낸 것인가? 같은 말을 반복한 내 글은 의미가 없는 글인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그들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지라도 적어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이상적 공감대라는 불가능한 꿈을 버리지 못한 나는 이번 글을 쓰면서 이 꿈에 또 한 발짝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글쓰기는 나에게 바로 이런 의미이다.